



‘지애의 꿈’

“오초아 누르고 정상 오른다”

내일 개막 하나은행-코오롱챔피언십서 샷 대결 관심

새로운 골프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와 한국여자골프의 자존심 신지애(19·하이마트)가 한국에서 샷 대결을 펼친다.
이들이 격돌하는 무대는 19일부터 사흘간 경주 마우나오션 골프장(파72·6천270야드)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 총상금 150만달러에 우승 상금은 22만5천달러.
2002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LPGA 투어 ‘코리아인 군단’의 산실이 되어 왔다.
LPGA 투어 비회원이었던 안시현(23), 이지영(22·하이마트), 홍진주(24·SK에너지)가 이 대회 우승을 통해 미국 진출의 꿈을 이뤘다. LPGA 투어는 비회원이라도 투어 대회에 출전해 우승하면 이듬해 투어 카드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시차와 코스 적응에서 유리한 국내 선수에게는 꿈의 무대인 셈이다. 더구나 안시현, 이지영, 홍진주 뿐 아니라 박세리(30·C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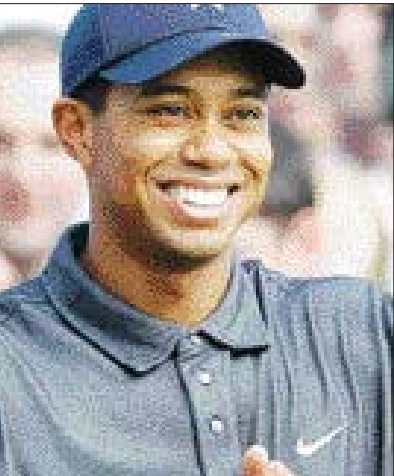
박지은(28·나이키골프)까지 지금까지 다섯 차례 대회 우승은 모조리 한국 선수 차지였다.
올해 가장 유력한 ‘토종’ 우승 후보는 국내에서 7승을 올렸고 간간히 출전한 LPGA 투어 대회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한 신지애가 꼽힌다.
상금으로만 올 시즌 5억원을 벌어들인 신지애는 14개 대회에 출전, 라운드당 평균 타수 69.68타로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지난 주 하이트립 여자프로골프 챔피언십에서 신지애는 새로 바꾼 웨지가 손에 익지 않아 쇼트게임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공동 5위에 그쳤지만 이제는 완전히 적응을 끝내고 우승을 향해 샷을 가다듬고 있다.
신지애는 작년 대회에서는 공동 4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산은 바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의 독주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

운 여제로 등극한 오초아.
올 시즌 LPGA 투어에서 7개의 우승컵을 쓸어 담은 오초아는 상금 300만달러 시대를 열었고 21개 대회에서 평균 타수 69.73타를 기록한 최고의 샷으로 한국 무대에서도 우승컵을 추가할 태세다.
또한 LPGA 상금 랭킹 2위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US 여자오픈 챔피언 크리스티 커(미국)를 비롯해 ‘코리아인 시스템’의 맏딸 박세리와 김미현(30·KTF), 여자월드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우승자 이선화(21·CJ) 등 위너스 클럽 멤버들이 총출동한다.
선수들간의 경쟁 못지 않게 승패를 좌우할 변수는 바람이다.
대회가 열리는 마우나오션 골프장은 전장이 그리 길지 않고 어렵지 않은 코스지만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분다. 4개의 파5홀은 비교적 짧은 편이고 4개의 파3홀은 긴 편이라서 파5홀에서는 공격적으로, 파3홀에서는 안정적인 플레이가 요구된다. 한편 이번 대회는 MBC와 MBC ESPN이 생중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LPGA 투어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 개막을 이틀 앞둔 17일 경주 마우나오션 컨트리클럽에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오른쪽)와 김미현이 나란히 서서 가벼운 샷으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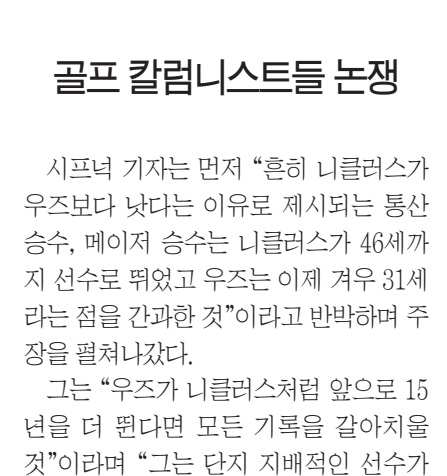
우즈 “누가 더 위대한 골퍼인가” 니클러스



우즈 우세론

“모든 기록 갈아치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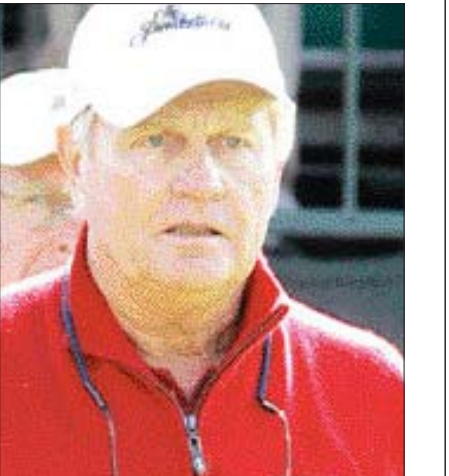
잭 니클러스와 타이거 우즈(이상 미국) 중 누가 더 위대한 골퍼 선수인가 하는 해묵은 논쟁에 이번엔 유명 골퍼 칼럼니스트들이 가세했다.
미국 골프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골프닷컴은 17일(한국시간) ‘타이거 vs 잭’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둘을 비교 분석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앨런 시프너 기자는 우즈의 편을 들고 같은 회사 마이클 뱀버거 기자는 니클러스의 손을 들어줬는데 두 사람이 주장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니클러스 우세론

“장비 등 조건 옛날이 열악”

시프너 기자는 먼저 “흔히 니클러스가 우즈보다 낫다는 이유로 제시되는 통산 승수, 메이저 승수는 니클러스가 46세까지 선수로 뛰었고 우즈는 이제 겨우 31세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주장을 펼쳐나갔다.
그는 “우즈가 니클러스처럼 앞으로 15년을 더 뛰려면 모든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라며 “그는 단지 지배적인 선수가 아니라 사상 가장 훌륭한 골퍼 선수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또 메이저 4개 대회 연속 우승, 1년에 메이저 3개 대회 우승 등 니클러스는 이루지 못했지만 우즈가 달성한 기록들을 나열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뱀버거 기자는 “우즈가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언젠가 니클러스의 기록을 추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니클러스가 정답이다. 한 선수의 위대함을 평가하는 데는 그가 이뤄낸 것들의 총합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니클러스 시대의 코스 관리가 지금보다 훨씬 엉망이었고 훈련 기법이나 도구들, 비디오 분석 등 여건이 지금이 훨씬 좋다는 점 등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고려 대상에 넣지 않더라도 니클러스가 가장 위대한 선수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니클러스는 라운드를 마치고 클럽 하우스에 앉아 있는 선수가 우즈는 이제 8번 홀 정도 티샷을 날리기 위해 가고 있는 중이다. 시간은 우즈의 편이지만 우즈가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이뤄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설명한 뱀버거 기자는 “우즈가 19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을 이뤄내 18번의 니클러스를 추월한다면 그때 우즈가 최고의 선수라고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프리미어 리그 소식

설기현 주말 데뷔 카운티전 대비 훈련 재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설기현(28·풀럼·사진)이 구단 홈페이지에 근황을 소개했다.
설기현은 17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새로 개설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주에는 A매치 때문에 조용하게 보냈는데 이번 주말 데뷔 카운티와 홈경기를 대비해 15일부터 팀 훈련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설기현은 “아들이 다니는 학교 운동장에서 달리기와 두 살배기 딸과 놀아주며 대부분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 정말 바쁘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토트넘

의 이영표와 골프를 치고 싶다”고 설명했다.
런던 남쪽 서리주 서튼에서 가족과 살고 있는 설기현은 “이곳에 온 지 몇 달 됐다. 한인 밀집 지역과 가까워 좋다. 친구도 많고 팀 훈련장도 가깝다”고 했다.
새로 이적한 풀럼에 대해서는 “전에 뛰던 울버햄프턴이나 레딩보다 훨씬 큰 구단이다. 이곳에서 훈련 조건이 매우 훌륭해 놀랐다. 동료와 스태프도 친절하고 쉽게 정착할 수 있었다. 현재 모든 것이 환상적”이라고 말했다.
또 “나에게 딱 맞는 구단이며 나만의 축구



를 할 수 있다. 어릴 때 꿈이 잉글랜드에서 뛰는 것이었고 프리미어리그는 세계 최고의 리그다. 여기에서 뛰는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며 “그러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건 팀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다. 리그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하는데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1승4무4패로 강등권인 18위에 처져 있는 풀럼에게 23일 데뷔 카운티전은 매우 중요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호랑이 빠진 그린’...해링턴 첫날 선두

PGA 그랜드슬램...우즈 불참

브리티시오픈골프 우승자 파드리크 헤링턴(아일랜드)이 4개 메이저 대회 챔피언이 되기 겨우 남은 미국프로골프협회(PGA) 그랜드슬램 첫날 선두로 나섰다.
해링턴은 17일(한국시간) 버뮤다의 미드오션골프장(파70)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3개를 묶어 3언더파 67타를 쳐 US오픈 챔피언 알렉 카브레라(아르헨티나)에 1타차 1위에 올랐다.
마스터스 우승자 잭 존슨(미국)과 짐 퓨릭

(미국)은 1오버파 71타에 그쳤다.
이 대회는 2라운드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우승자를 가린다.
당해 시즌 메이저대회 우승자 4명을 초청해 치르는 이 대회는 PGA챔피언십 챔피언인 타이거 우즈(미국)가 출전하지 않아 2003년 US오픈을 제패한 퓨릭이 대타로 출전했지만 ‘골프황제’가 빠지면서 잭 퓨릭 대타로 전락했다.
우즈는 1998~2002년 대회 5연패에 이어 2005년과 작년에도 우승을 차지해 무려 7차례나 우승을 휩쓸었으나 올해는 딸, 아내와 휴가를 보내기 위해 불참했다.

금강산 농협오픈 골프대회

25일부터 SBS에서 생중계

SBS가 25일부터 북한 금강산 아난티 골프장에서 열리는 SBS코리아투어 금강산 아난티 NH농협오픈대회를 생중계한다.
SBS는 “방송 사상 처음으로 북한에서 열리는 골프 경기를 생중계하는 것”이라며 “남북 방송교류차원의 북한 지역 내 생방송으로 전해지는 중계를 통해 가을 금강산 절경과 골프의 만남을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SBS는 25일부터 28일까지 전 라운드를 지상파 TV와 골프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맨유 킥스 계약 연장...2009년 6월까지

‘전설은 끝나지 않았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웨일스 출신 베테랑 스타플레이어 라이언 킥스(34)가 2009년 6월까지 계약을 연장했다고 구단이 17일(한국시간) 밝혔다.
맨유는 2007~2008년 시즌으로 계약이 끝나는 킥스가 적어도 2008~2009년 시즌

까지의 울드 트래퍼드(맨유 홈 구장)에 남게 됐다고 전했다.
열 네살에 유소년 선수로 등록하고 16년 전인 1991년 데뷔한 킥스는 지금까지 맨유에서 한우물만 파면서 727회 출장한 대기록을 갖고 있다.
그동안 9차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비롯해 FA컵 4회, 유럽챔피언 1회(1999년) 등 맨유가 모두 18개 타이틀을 안아오는데 혁

혁한 공을 세웠다.
킥스가 계약을 연장함에 따라 맨유의 원조 전설로 통하는 보비 찰턴 경이 세운 759회 출장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측면 미드필더로 박지성(26)의 주전 경쟁자이기도 했던 킥스는 조국 웨일스가 약체라 월드컵 무대와는 인연이 없었지만 10년 넘도록 유럽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평가돼 왔다. 그림같이 휘어지는 원발 프리킥과 날카로운 측면 크로스가 전매특허.
이번 시즌에도 무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과 함께 변함없이 맨유 공격진을 이끌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